



VIV-ASIA 축산무역박람회 개최

- 86. 4. 21~24, 도오쿄에서 -

제 1 회 VIV 아시아지역 축산무역박람회가 내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도오쿄에서 열린다.

이 박람회는 2년마다 네덜란드에서 개최되어온 VIV의 아시아지역 행사로서 유럽·북미·호주 등의 양계·양돈·낙농 관계 사육기술 및 장비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닭·돼지 생산 계열화 추진

- 올해 하반기부터 축협농가등에 출하 -

농수산부는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축산물과 동을 막기 위해 올하반기부터 돼지와 닭에 대해 계열화 생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7월 22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돼지와 닭의 생산체제를 축협·대규모양축업자·육가공공장 등 계열주체를 2원화, 계열주체는 양축 농가에 대해 우량종 및 사료 등을 공급하고 양축 농가는 기른 가축을 계열화주체를 통해서만 출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계열화생산체제가 제대로만 갖춰지면 계열화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만으로 축산물수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이를위해 올 연말까지 32억원을 투입, 15억원으로는 육가공공장등 5개 민간업체를

계열화주체로 선정해 돼지새끼와 사료대 등을 지원하고, 17억원으로는 우량종돈 보급을 위한 축협 종돈장을 설치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와함께 각 시·도에 양돈업 허가지침을 시달, 양돈업 허가는 모돈 5백마리이상, 1천마리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했을 때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1천마리이내로 감축토록 했다.

농수산부는 지난 4월 돼지와 닭의 등록기준을 마련한바 있는데, 돼지의 경우 50마리~5백마리, 닭은 육계는 1만마리, 산란계의 경우 3만마리 이상 키울때는 시·도에 등록토록 조치했었다. 돼지와 닭 양축농가에 대해 등록 또는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계열화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의 돼지수는 2백 82만5천마리이며 닭은 5천 2백19만마리이다.

수입배합사료 판매도 신고토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농수산부는 사료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개정, 밀기울이나 수입배합사료를 판매하는자도 사료종 육수수 가공부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토록 했다.

지난 7월 20일 공포, 시행된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에 따르면 또 사료성분등록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 맥강, 소맥피, 탈지강 등과 같이 이들 사료외의 곡물 및 곡물 부산물에 대해서도 사료성분등록을 생략토록 했다.

이 개정령은 이와함께 사료제조업자가 2개 이상의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공장에 대해서만 품질관리시설과 인원을 갖추면 되도록 했으며, 종전에 사료의 성분등록 및 검정, 기타 시험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던 것을 사료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그 금액을 2천원내지 1만원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사료제조업의 허가권자가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종래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토록 하던 것을 20일 이내에 허가통지기간을 단축했으며 사료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자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허가 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범위를 허가 또는 취소된 사료가 속하는 배합사료·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에 한하도록 했다.

한편 사료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원에 관한 사항과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86년 2월부터 각각 시행토록 했다.

전국계우회연합회총회

전국계우회 연합회(회장 임용택)는 지난 7월 9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보고 및 85년 사업방향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는 운영위원회를 매월 5일경 개최하기로 하는 등 운영방침 일부를 바꾸는 한편, 하절기 계란수급대책(홍보지 배포, TV 광고) 및 감산대책, 생산원가를 밀들고 있는 난가대책 등을 협의, 계란소비촉진, 노계 및 과산계 도태, 상품성 향상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원일부를 개선, 부회장에 최준구씨(광주계우회), 감사에 김정배씨(의정부 계우회)를 각각 선임했다.

닭 1천 6백마리 폐사

-충남 논산군 논산읍에서-

요즘 기온의 급상승으로 더위에 못이겨 닭의 폐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충남 논산군 논산읍 석림리 신재순씨 양계장에서는 300마리가 죽는가 하면, 28일엔 이마을 15가구에서 사육되던 닭 1천 3백여마리가 불볕 더위에 폐사돼 피해를 입었다.

각 농장 계사의 환기와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원성육계협회 사무실 현판식

원주원성육계협회(회장 이덕운)는 지난 7월 6일 원주시 학성2동 203-3 현지에서 원주축협 홍순갑전무를 비롯,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원주지구 축협조합이면서 천호 인터그레이션 등 두천도계장과 계약생산을 체결하고 있는 원주원성협회는 월 4천 8백~5천수를 납품하고 있다.

아메리칸 로얄 가축품평회

-11월 10일~15일, 캔사스시에서-

8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American Royal 가축품평회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Kansas 시에서 개최된다.

매년 9,000두 이상의 소, 돼지, 양 및 말등 우수한 종축이 전시되는 이 품평회에서는 기간중 12회에 걸쳐 입상된 종축을 경매하며 전국에 있는 우수한 종축의 정액도 판매한다. 특히 외국인 참관자를 위해 Kansas 주와 Missouri 주정부 농무성 주관으로 이 지역의 면양농가, 양돈농가, 육우사육농가, 낙농가, 대학 및 기타 공공연구기관, 인공수정 및 수정난 이식시설 등을 돌아 볼 수 있도록 추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농업무역관(Tel. 778-9115)이나 USFGC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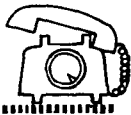
양돈장 배설물처리 큰 문제

축산의 규모가 커지자 오물처리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진정행의가 계속되고 최근에는 일간지에 직접 투고하여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돈장의 경우가 심한데 정화조를 가동않고 직접 하천으로 흘려보내거나 산에 오물을 살포하여 악취를 풍기는 행위 등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업계단신



○한인규교수 출국 : 1985년도 Fulbright 객원 교수로 선정되어 1년간(1985. 8. 1~1986. 7. 31) 캘리포니아대학교(테이비스 캠퍼스)에서 연구(부존자원 사료 이용도 증진연구)와 강의를 하게 되어 지난 7월 29일 출국하였다.

아울러 한박사는 이 기간중에 제10차 국제에너지 심포지움과 1985년도 미국 축산학회에 참석하고 미국내 저명한 대학교와 연구소를 돌아볼 예정이다.

Dr. In K. Han
Visiting Professor
Dept. of Animal Science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Davis, CA 95616
USA



(한인규 교수)

○성원화학(대표 이용남) : 사세확장에 의

한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지난 8월 1일 부로 기획부에 최병조씨(서울대 수의대졸)를 과장대리로 특채했다.

한편 생산관리를 담당하던 천인영 관리과장을 영업1부 과장(의정부 지역담당예정)으로, ~~김형호 과장을 생산관리 과장으로 각~~ 각 전보발령했다.

○윤효직, 정찬길 교수 : 지난 7월 29일 필리핀정부 초청으로 필리핀청과물 유통개선 FAO 컨설팅 자격으로 출국, 오는 8월 9일 귀국 예정이다.

○삼진향미양행(대표 이상구) :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코자 지난 6월 22일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5-31 유진빌딩 3층

• 전화 : 846-40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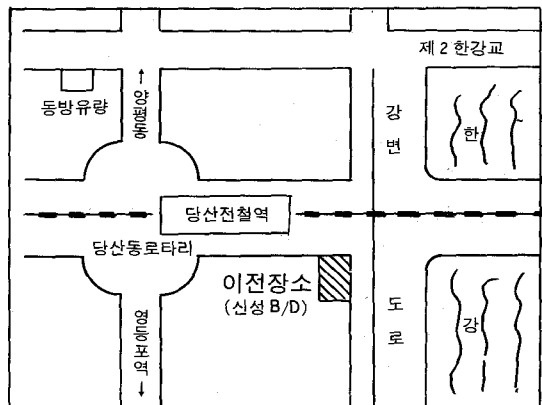
○대산실업(대표 이연수) : 최근 원예용 비닐 배트를 개발한 등사는 대전지사 및 공장의 전화를 증설 했다.

전화 : (042)44-6262

○월간현대양계사(대표 김중곤) :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오는 8월 16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83(신성 B/D 3층)

• 전화 : 종전과 같음



○ <주>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 한화섭) : 동사는 제품의 다양화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7월 1일부로 가축위생연구소 병독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병직 박사를 생산담당 전무이사로 영입하였다.

바이러스와 미생물에 일가견이 있는 강병직 박사의 취임으로 <주>한국미생물연구소는 양축가가 원하는 더욱 향상된 양질의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직 전무)

○ 동진가축약품 주소변경 : 동사의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309
전화 : (0346)7-8166

○ 중앙 케미칼(대표 김무진) :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로 기획부에 이종세씨를 특채했다. 한편 동사는 장염과 하리증 및 호흡기 감염증에 특효약인 “암피콜리”를 개발하여 시판예정이다. “암피콜리”는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광범위 항균제로서 그람양성균 및 그람 음성균에 유효하며 소화기 및 호흡기 감염증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포장단위 500그램박스) 또한 동사는 7월 15일 오후 2시 양지가축(대표: 김간영) 후원으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양돈단지에서 회원 20여명을 모시고 양돈장의 고질병인 위축성비염, 설사, 폐렴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메토믹스-플러스 및 광범위 내외부 구충제인 이보맥 등 신제품소개 및 양돈질병예방 관리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연사: 한인식 상무)

○ 기릉농원 이종운 이사 귀국 : 지난 7월 12일 태국, 싱가포르, 대만 등 축산관련업체를 시찰하고 일본 노자와구미 하바드농장을 방문하여 업

무협의를 마치고 23일 귀국하였다.

○ <주>이글케미칼(대표 강승조) : 사세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 20일 영업부에 오석균(영남대 축산과졸)씨를 특채하여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 풍진화학(주)배합사료(대표 최성강) :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7월 28일 서울사무소를 반월공장과 통합하였다.

- 주소 :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팔곡2리 27번지
- 전화 : (02) 857-5042~8
(0345)80-1601~10
80-0071~3 · 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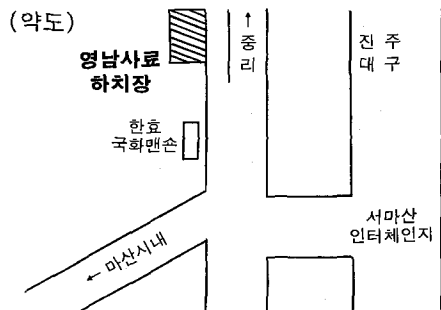
○ 천호통산(대표 이계조) : 사세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로 영업부에 이성우씨(전 양돈협회)를 특채했다.

○ 다다축산기계(대표 백일규) : 사세확장으로 구 다육축산(자동급이기 일광자동점멸기, 계분 건조설비 개발업체)를 합병 흡수하였다.

동사는 앞으로 양계설비자동화에 대비하여 신제품 개발과 시설차 제품의 AS체계를 보다 철저히 재편성하고, 각 농장의 경영합리화에 일익을 담당키로 했다.

○ 영남제분(주)배합사료(대표 유용술) : 보다 원활한 공급과 양축가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난 7월 11일부로 마산하치장을 이전하였다.

- 주소 : 마산시 회성동(서마산 인터체인지 부근)
- 전화 : 55-1240



○**진양사료(대표 강성배)** : 동사는 7월 1일 부로 총무부 차장에 박종현과장을, 연구실 차장에 손중천과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한편 동사는 지난 6월 5일 신형태(성균관대 낙농학과) 박사를 초빙, 동사 세미나실에서 「젖소의 사양체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삼우화학(대표 이완상)** : 7월 1일부로 임직원을 승진 발령했다.

이 사 정인섭→상무이사
 영업과장 이성진→영업부차장
 과장대리 김장곤→영업과장
 주 임 정종린→영업과장
 사 원 김기양→영업과장
 사 원 윤의덕→영업주임
 과장대리 최정돈→대구출장소장

한편 7월 29일자로 영업담당이사에 방효선씨가 취임했다. 방이사는 서울농대를 졸업한후 사료협회, <주>현대등에서 근무해왔다.

○**한양수의약품(대표 조훈영)** : 세포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호남지역의 영업담당 홍재곤(경북대 수의대졸)씨를 특채하였다.

한편 배합사료의 영양소 이용율을 균형있게 하고 사료효율 개선과 질병예방 영양관리 및 가축의 생리에 관한 지역 세미나를 인천, 춘천, 강화, 양평, 전남, 광주, 김해에서 개최하였다.

○<주>**대보동물(대표 최종묵)** : 서울 경기 지역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로 추웅식(건국대 사료학졸)씨를 특채하였다.

○**해표사료 본사 이전** : 7월 21일 본사를 수원공장으로 이전했다.

- 이전주소 :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영덕리 87번지
- 전화증설 : (수원) 8-4611~2, 2771, 7262~3 (서울) 763~3961

엄밀한 영양수준 배합과 운송이나 취급 및 급여에 가장 적합한 물리적 형태의 pellet 사료는 이미

구미선진국에서 그 효율을 인정받아온 바, 동사에 서도 pellet 생산라인을 설비 엄격한 시험을 거쳐 8월중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명양돈 돈우회 창립** : 7월 25일 현판식을 갖고 양돈인의 권익향상과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갖기로 합의. 대명양돈 돈우회는 광주군 오폭면 일대의 양돈인중 500두 이상의 회원 12명으로 발족하였으며 사무실은 성남시 소재의 대명가축이며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 장 강성운
 총 무 정현창
 감 사 구태곤
 관리수의사 최용기(중앙케미칼 영업과장)

Ⓢ 신제품 Ⓢ

타이로 씨엠



과학사료(대표 신정재)는 각종 폐염기관지염 및 대장균 살모넬라균증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광범위 복합 항생제인 「타이로 씨엠」을 지난 6월부터 절찬리에 시판중이다.

새로운 복합 항생제인 타이로 씨엠은 미국 엘랑코사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타이로신제에 클로람 페니콜을 복합하여 항균력이 강하고 항

균 범위가 넓어 가축의 전신 감염증은 물론 국소 질환에도 치료효과가 뛰어나며, 두 제제의 상승작용으로 호흡기 감염증과 설사에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있다.

특히 부작용을 최소로 감소시킨 최신소염제 프레드니 소론이 첨가되어 있어 항생제의 치료효과를 더욱 높이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필름코팅 보온덮개 시판

신양헬트공업사(대표 장인섭)는 필름코팅 보온덮개를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비닐, 천막, 스티로폼이 필요없으며 시공이 간편하고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 양축가에 큰 도움이 되게 되었다.

엠씨-콜리주사, 에리박트림 개발

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 한화섭)는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했던 광범위 복합항생제인 「엠씨-콜리주사」와 CRD 등에 특효약인 「에리박트림수용산」을 개발하여 시판할 예정이다.

「엠씨-콜리주사」는 그람 음성균에 살균적으로 작용하는 폴리 펩타이드계 항생물질인 클리스틴과 그람양성균 및 일부 그람음성균에 유효하게 작용을 하는 반합성 페니실린계인 암피실린의 이상적인 배합으로 높은 상승작용을 나타낸다.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불활성화하는 율이 타항생제보다 낮음은 물론 내성균을 생성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장균, 살모넬라 등에 의한 세균성설사, 각종 장염, 자궁내막염, 유방염, 파스츄렐라와 포도상구균에 의한 폐염 등 호흡기성질병에 효과가 좋다.

* 포장단위 : 50ml 바이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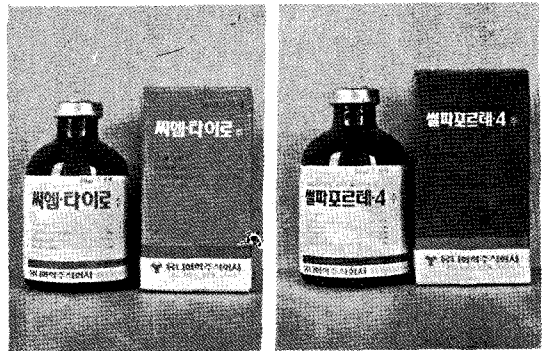
또「에리박트림」은 마크로라이드 계 항생제인 에리스로마이신과 설파제와 트리메토프림의 이상적인 배합으로 포도상구균, 코리네 박테리움, 크로스트리디움 등 그람양성균과 마이코플라스마에 대하여 높은 효능을 나타내며 헤모필루스균 및 네이

세티아균 등 그람음성균에 대하여도 높은 효능을 나타낸다.

마이코플라스마, 만성호흡기병(CRD), 기관지 폐염, 살모넬라증, 계티푸스, 장염, 패혈증과 소화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한다.

* 포장단위 : 100g 플라스틱병×10

셀파포르테4주, 씨엠-타이로주 생산 개시



유니화학(주)는 최신 공조시설을 갖춘 새로운 주사제시설을 완료하여 신제품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그동안 온도 등 물리적 조건변화에 따른 역사 및 성상 등의 변화에 대한 시험생산을 거듭해 온 동사는 시험생산제품의 성공에 따라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였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셀파포르테4주는 단·중·장기로 작용하는 3종의 셀파제와 트리메토프림을 복합하여 상승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속효성과 지속성을 겸비하고 셀파제의 독성을 최소로 줄인 제품으로 독일 TAD사의 기술협조로 생산되는 제품이다.

또한 씨엠타이로주는 타이로신과 클로람페니콜이 복합된 광범위항생제로 장기보관 및 온도변화에 따른 역가나 성상의 변화가 없고 점조성이 낮아 주사시 불편을 해소시킨 제품으로 호흡기 및 소화기질환 등 세균성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